

D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한 전문대학 중도탈락 개선 방안

Measures to reduce Students' Withdrawal Rate : a case study on College D

최길성, 이용창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미디어기술학부

Kil Sung Choi(kschoi@dima.ac.kr), Yong Chang Lee(yctlee@dima.ac.kr)

요약

전문대학의 재학생 충원율은 갈수록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중도탈락률의 증가는 전문대학을 심각한 위기로 몰고 있어도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왜냐하면, 중도탈락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이 입학한 상태에서는 기존의 어떠한 방법도 중도탈락을 방지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도탈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D대학의 입학전형별 중도탈락 실태를 파악한 후, 그 결과를 입학전형 방법과 절차에 반영함으로써 중도탈락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입학전형별로 대학생활 만족도와 중도 탈락률 간 비교를 통해 중도탈락률을 개선하는 방법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전문대학의 중도탈락률을 개선하는데 유효하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 중심어 : | 전문대학 중도탈락률 |

Abstract

It is becoming increasingly difficult for colleges to recruit new students to their full capacity. The increase of the withdrawal rate drives these colleges into crisis yet little has been done about it, because students with great possibility to withdraw enter colleges and old measures to stop them from dropping out hardly work.

This study attempts to grope new measures to prevent dropout from college. To do this, I investigated withdrawal rate by college admission types and suggested measures to reduce withdrawal rate by incorporating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into admission procedures. I also compared the different types of admission in students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and withdrawal rate, and suggested the measures to alleviated withdrawal rate. I expect the suggestions made in this study would be used effectively to reduce the withdrawal in colleges.

■ keyword : | Students' Withdrawal Rate |

I. 서론

진로와 직업을 위한 전문대학 직업교육은 충분한 강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입학자원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전문대학은 대학 서열화에 밀려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학력위주로 대학을 입학하는 풍토가 직업교육의 장

점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 학습 능력은 점차 낮아지고 대학생활 부적응 학생 수가 늘고 있다.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자퇴를 하거나 제적을 당하여 중도에 탈락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대학생 중도탈락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전문대학 전체 평균 중도탈락률은 6.87%수준에 이른다.

접수일자 : 2013년 09월 17일
수정일자 : 2013년 11월 06일

심사완료일 : 2013년 11월 11일
교신저자 : 최길성, e-mail : kschoi@dima.ac.kr

중도탈락은 학생 개인에게 교육기회 상실에 의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교육의 질적인 저하와 재정난을 가중시켜 대학의 존립까지 위협하게 된다. 따라서 대학은 중도탈락 문제를 해소시켜 학생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유지하는 일이 무엇보다 급선무라 할 수 있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모두 중도탈락의 원인을 분석하거나 학생지도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웠다. 진로적성이 맞지 않거나 학업욕구가 미비한 학생들을 지도하여 중도탈락을 막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학생활을 그만두겠다고 결심한 마음을 돌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존의 방법이 아닌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예컨대, 입학하기 전에 진로 및 학습방향을 지도하는 방법이 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의 자퇴는 입학과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대학에 진입하는 과정을 신중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어차피 대학생활을 포기할 학생들에게 미리 다른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에 착안하여 D대학의 중도탈락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입학전형별로 학생들의 중도탈락 유형을 분석하여 전형절차와 입학과정에 반영함으로써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입학 이후에 대한 재학생의 중도탈락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새로운 방안도 제시하였다. 즉, 입학전형별로 대학생활 만족도와 중도 탈락률을 비교하여, 대학생활만족도 조사를 통해서도 잠재적 중도탈락 가능한 학생들을 선별하여 지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II. 전문대학 중도탈락 실태

1. 전문대학 중도탈락 문제의 심각성

중도탈락률이란 중도탈락 학생 수/제적학생 학생 수를 말한다. 즉, 자퇴를 하거나 제적을 당해 대학을 그만둔 학생들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는 교과부가 평가하고

있는 재학생 충원율도 편제정원대비 중도탈락자 비율을 말한다. 대학지표에서 재학생 충원율은 30~40%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만큼 대학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표인 셈이다. 우선 충원율을 높이려면 입학생 충원율을 높여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일은 중도탈락을 막는 일이다. 중도에 탈락하는 학생들이 많아질수록 대학은 재정이 부실해지고, 그로 인해 대학은 비리나 불법, 탈법 행위를 만들어내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실제 퇴출된 대학들이 모두 중도탈락률이 가장 높은 대학들이었다는 사실에서 중요함을 입증하고 있다.

<http://www.academyinfo.go.kr/>에 공개된 대학별 중도탈락률을 살펴보면, 전국 전문대학 143개 대학의 평균 중도탈락률은 6.87%수준이다. 중도탈락률이 낮은 상위 10개 대학의 평균 탈락률은 1.52%수준이었고, 그 중에는 간호 관련 대학이 7개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탈락률이 10%이상 되는 대학도 15개나 되었고, 그 중에는 29.9%나 되는 대학도 포함되어 있었다. 2013년 재정지원이 제한되고 퇴출대학으로 선정된 6개 대학의 평균 탈락률은 11.5%로 나타났다. 이는 중도탈락문제의 심각성을 시사해주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2].

사례조사 대상인 D대학은 5.3%로 43위 수준이었다. 이러한 수치가 정원 내 범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지만, 편입에 의한 충원을 제외한다면 중도탈락자 수가 적지 않음을 이번 연구조사에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 실제로 조사한 자퇴나 제적에 의한 탈락률은 7.2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료를 D대학 등록금으로 환산하여 매년 약 16억 원 정도 재정의 결손에 해당된다는 점에서도 중도탈락 문제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2. 중도탈락에 관한 선행연구결과와 그 한계

전문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학습 무기력과 자기 효능감을 상실한 채 입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전문대학의 기초학습능력 저하 문제를 다룬 연구에 잘 나타나 있다[3]. 이처럼 성적이 맞춰 대학에 진학하거나 학습의욕이 낮은 학생들은 마지못해 대학을 다니는

경우가 많고, 부적응 상태에서 언제든지 대학을 포기할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이를 해소할만한 효과적인 대책이 없는 상태이어서 대학마다 고심하고 있을 뿐이다.

전문대학생의 중도탈락에 관한 [1]의 연구는, 개인과 대학과 사회적 변인이 위계적으로 중도탈락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중도탈락을 줄이기 위해 흥미로운 교육과 교육 서비스 향상, 사회인식의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문대학 학생들에 대한 중도탈락에 관한 연구[4]도 마찬가지다. 중도탈락의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학생과 대학과 부모의 의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이는 중도탈락을 예방하거나 중도탈락률을 줄이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보편적 학문에 비해 특정 직업군의 학과가 높다는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제시한 논문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연구[5]은 전문대학 신입생의 의사결정능력과 대학생활적응도, 대학생활 만족도에 대한 상관성을 조사하여 이를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음을 연구결과로 제시하였다. 즉, 자신의 의사결정역량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만족도도 높다는 점이다. 또한, 전문대학 신입생의 열악한 여건을 진단하고, 성적에 따른 진학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좌절, 낮은 자아정체감 등으로 대학생활이 불만족스럽고 흥미를 잃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6]은 대학과 전공 선택에 있어 부모의 결정에 의존할 경우, 전공과 희망 직업의 관련성이 낮을 경우에 중도탈락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7]의 연구에서는 재정적 어려움이 중도탈락의 요인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들의 공통적으로 중도탈락률 가능성과 중도탈락 의도에 대해 면밀한 분석결과 제시하는데 의미 있는 연구 결과라 할 수 있지만, 중도탈락률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방안으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중도탈락 가능성을 지닌 학생들이 입학한다면, 어떠한 지도나 대책으로도 실효를 거두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3. 중도탈락 개선을 위한 착안점과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D대학의 학생 중도탈락률을 줄이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

해서는 우선 입학 후보자는 입학 전 관리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입학전형에 따라 맞춤형 지도를 제공함으로써 대학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중도탈락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학생 선발과정에 신중을 기하는 방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대학에 대한 소속감과 학과 전공에 대한 개인의 학습욕구가 분명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가설을 정하였다. 가설1)은 입학전형별 학생들의 중도탈락률에 차이가 있다는 점과, 가설2)는 입학전형별 학생들의 대학생활 만족도가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가설1)에 의한 결과가 유의미할 경우, 입학전형 절차와 입학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중도탈락률을 사전에 줄이는데 적용할 수 있다. 입학과 동시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입학전형 절차와 입학과정에 중도탈락 가능성 학생들을 선별하여 사전에 입학인원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이 효율적인 대안이기 때문이다. 즉 중도탈락률의 차이를 입학전형별 중도탈락률을 입학전형별 인원 비율을 조정하는데 반영시키고, 전형방법에 따른 입학 상담과 충원안내에 별도의 절차를 매뉴얼로 사용하거나, 사전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반영 등에 적용하는 것이다.

가설2)에 의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경우, 가설1)의 결과와 상관관계를 비교해봄으로써 대학생활 만족도를 통해 중도탈락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대학생활만족도 조사를 통해 중도탈락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면, 잠재적 중도탈락의지 학생들을 선별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지도 프로그램을 운용하는데 적용함으로써 중도탈락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4. 연구방법 및 설문조사

연구방법은 연구목적상 D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입학전형별 중도탈락률 조사에서 중도탈락 대상 범위는 D대학 정원 내 입학생 중에서 2011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최근 3년을 대상으로, 졸업대상자에서 제외된 제적 또는 자퇴 학생을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학적업무로 처리된 데이터를 2013년 8월 5일부터 8월 23일까지 3주 동안 3명의 조사원이 참여하였다.

설문조사는 5개 학부 15개 학과 또는 계열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은 D대학에서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대학생활만족도 설문지 문항에 입학 전형구분을 위한 항목을 추가하였다. D대학의 정원 내 입학 전형은 5가지 전형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일반전형, 인문계, 특별전형, 면접전형, 연계교육 등이다.

설문 문항은 대학 인프라, 행정 서비스, 학생 지원, 학생역량 및 취업 지원, 교육과정 및 운영, 교수학습 및 강의 만족도 등 신입생 73문항, 재학생 51문항으로 선정하였다.

응답방식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대체로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2013년 5월 6일부터 2013년 5월 10일까지 사전에 설문취지와 협조를 얻은 후 강의시간에 실시하였다.

배부된 설문지는 총 2,745부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1학년 890명, 2,3학년 1,302명이 응답하여 총 2,192부로 79.45%의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무응답 문항이 많거나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설문지 328부를 제외하고 남은 유효 설문지는 1,864부로 설문지의 유효 데이터율은 88.11%로 나타났다.

III. D대학의 중도탈락현황 및 분석

1. 중도탈락 현황 및 분석

최근 3년 동안 D대학의 중도탈락 현황은 [표 1]와 같다. 평균 탈락률은 7.28%로 공시된 자료에 비해 1.98%가 높다. 편입생들이 재학생 수에 제외되었기 때문에 다소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탈락률의 50.7%는 자퇴에 의해서이고, 미등록 복학 또는 미등록 제적에 의한 중도탈락은 49.3%를 차지하고 있다.년도 별 탈락률은 비슷하나 2013년은 2학기 탈락자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탈락률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학기에 비해 1학기 초반에 자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에서 사전방지책의 필요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또한 자퇴 못지않게 제적에 탈락문제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1. 최근 3년 동안 D대학의 중도탈락 현황

년도별 (편제정원, 명)	자퇴 인원	자퇴율 (%)	제적 인원	제적율 (%)	중도탈락률 (%)
2011(2655)	108	4.07	99	3.73	7.80
2012(2655)	105	3.95	93	3.50	7.46
2013(2655)	81	3.05	94	3.54	6.59
계	294	3.69	286	3.59	580(7.28)

년도 별 자퇴 자를 사유별로 조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전공적성이 맞지 않아 대학을 그만 두는 경우가 62.4%로 가장 많았고, 타 대학 입학을 위해 자퇴하는 학생 수도 19.39%나 되었다. 가정형편이 곤란하거나 개인적 사정이 원인인 학생은 14.96%이고, 해외어학연수 또는 유급에 의해 포기한 학생도 3.4%로 나타났다.

전공적성 불일치로 진로를 변경한 학생 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성적에 맞춰 입학하는 학생 수가 많다는 것을 방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실기시험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이 내신이나 수능성적으로 입학한 학생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결과 분석도 동일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은 예비 입학생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이나 개별상담에서 전공적성을 강조하여 지도할 필요성을 제시해준다. 즉, 성적 및 합격 가능만을 고려한 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겪게 될 어려움과 고민에 대해 미리 일깨워주거나 해소해줌으로써 탈락을 막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표 2. 자퇴 원인별 현황

년도별 (자퇴인원)	가정사정	진로적성	타대학	기타
2011(108)	13	72	19	4
2012(105)	20	65	19	1
2013(81)	11	46	19	5
계(294)	44 (14.96%)	183 (62.24%)	57 (19.39%)	10 (3.40%)

학년별 자퇴현황은 [표 3]과 같다. 1학년 50.5%, 2학년 40.1%, 3학년 9.3%를 차지한다. 1학년의 경우 미복학 제적에 비해 자퇴로 인한 탈락 학생 수가 2배나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 2,3학년은 자퇴보다 미등록 제적 학생 수가 2배가량 많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학년의 경우 입학과정과 절차에 자퇴를 예방하는 개선 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고, 2·3학년은 미등록 제적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이 요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하겠다.

표 3. 학년별 중도탈락 현황

년도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2011	자퇴	66	37	5	108
	제적	45	43	11	99
2012	자퇴	66	30	9	105
	제적	48	34	11	93
2013	자퇴	60	18	3	81
	제적	8	71	15	94
계	자퇴	192	85	17	294
	제적	101	148	37	286

성별 중도탈락 현황은 [표 4]와 같다. 자퇴자는 남학생 45.6% 여학생 54.4%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많았고, 제적생은 남학생 67.5%, 여학생 32.5%로 남학생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의 경우 군휴학 이후 미등록으로 제적 처리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연에 특기자들이나 생계형 사회활동으로 인해 대학 생활을 포기한 학생들이 많은 것이 원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4. 성별 중도탈락 현황

년도	구분	남(명)	여(명)	계(명)
2011	자퇴	56	52	108
	제적	65	34	99
2012	자퇴	42	63	105
	제적	64	29	93
2013	자퇴	36	45	81
	제적	64	30	94
계	자퇴	134	160	294
	제적	193	93	286

2. 입학전형별 중도탈락현황 및 분석

표 5. 입학전형별 중도탈락 현황

년도	구분	일반전형	인문계	특별전형	면접전형	연계교육	계
2011	자퇴	66	13	27		2	108
	제적	60	2	36		1	99
2012	자퇴	55	19	30	1		105
	제적	61	3	28	1		93
2013	자퇴	41	15	19	4	2	81
	제적	60	2	31		1	94
총 자퇴자(명(%))		162(55.1)	47(15.9)	76(25.5)	5(1.7)	4(1.3)	294
총 제적자(명(%))		181(63.1)	7(2.4)	95(33.2)	1(0.3)	2(0.6)	286
총 중도탈락자(명(%))		343(59.1)	54(9.3)	171(29.4)	6(1)	6(1)	580
상대적 중도탈락률		9.57%	3.08%	14.3%	0.58%	1.5%	7.28%

입학전형별 중도탈락률은 [표 5]와 같다. 전체 중도탈락률 7.28% 중에서 일반전형 59.1%, 특별전형 29.4%로 2개의 전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88.6%로 높게 차지한다. 다른 전형의 경우에는 자퇴에 의한 탈락이나 제적에 의한 탈락 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문계 전형은 제적학생은 적지만 자퇴학생이 비중이 높다.

2013년 D대학의 입학전형별 모집인원은 일반전형 45%, 인문계 22%, 특별전형 15%, 면접전형이 13%, 연계교육 5% 비율로 선발하고 있다. 전형별 중도탈락률을 이와 같은 입학정원에 대비시켜 상대적 비율로 환산한다면 일반전형 9.57%, 인문계 3.08%, 특별전형 14.3%, 면접전형 0.58%, 연계교육 1.5%수준이다. 이는 전형비율에 반영시켜 중도탈락률을 개선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예비합격생을 대상으로 한 지도에 참고자료로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다.

입학시기별 탈락률은 정시1차 50%, 수시2차 32.5%, 수시1차 16.7%, 정시2차 2.4% 순으로 나타나지만 모집인원 비율을 감안한다면 수시1차 탈락률이 가장 적고 수시2차와 정시1차의 탈락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시1차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비교적 소신껏 대학 및 학과를 선택하거나 대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겠다. 특히, 자퇴율이나 제적율이 다른 전형에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수시1차 지원 학생들의 충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수시2차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탈락률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입학전형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6. 3년 동안 입학시기별 중도탈락 현황

구분	수시 1차	수시 2차	정시 1차	정시 2차	계
자퇴	35	104	155	10	294
제적	62	85	135	4	286
계(명(%))	97(16.7)	189(32.5)	290(50)	14(2.4)	580
모집인원(명(%))	426(48)	146(17)	278(31)	35(4)	885
상대적 탈락률	2.53%	14.38%	11.59%	4.44%	7.28%

3. 입학전형별 대학생활 만족도조사 및 결과분석

재학생 만족도 조사현황은 [표 7]과 같다. 성별 참여 비율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학 전형별 모집정원 비와 비슷한 분포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

다. 다만, 대학 생활을 경험한 학생들이 좀 더 정확한 의사결정력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신입생보다는 재학생 참여 비율을 높임으로써 신뢰수준을 높이고자 하였다.

표 7. 입학전형별 대학생활 만족도 조사현황

전형 구분	설문학생수									
	성별				학년					참석비(%)
	남	여	무	계	1	2	3	무	계	
일반전형	428	485	5	918	359	330	224	5	918	41.88
인문계	157	248	4	409	201	124	80	4	409	18.66
특별전형	121	177	8	306	156	81	62	7	306	13.96
면접전형	36	70	0	106	72	30	4	0	106	4.84
연계교육	34	5	0	39	19	14	5	1	39	1.78
기타	37	48	1	86	45	21	18	2	86	3.92
무응답	142	177	9	328	71	141	107	9	328	14.96
총계	955	1,210	27	2,192	923	741	500	28	2,192	100

중도탈락 가능성이 높은 학생은 대학생활 만족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만족도 조사 결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탈락률은 특별전형, 일반전형, 인문계, 연계교육, 면접전형 순 이지만, 대학생활 만족도는 인문계, 특별전형, 연계교육, 면접전형, 일반전형 순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본 조사 결과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중도탈락 학생 입장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중도탈락과 대학생활 만족도간 상관성이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한다. 하지만 특별전형과 인문계 전형은 중도탈락률도 높고 만족도도 낮다는 점과 면접전형이 중도탈락률도 낮고 만족도도 높다는 점은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특별전형과 인문계 전형에 대한 입시 전략 수립과 면접전형의 비중을 높여야하는 이유를 충분히 뒷받침해주기 때문이다.

표 8. 대학생활만족도 조사 결과

전형구분	대학생활만족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일반전형	918	3.51	1.464	83.99
인문계	409	3.35	1.396	85.57
특별전형	306	3.39	1.413	84.97
면접전형	106	3.48	1.451	94.34
연계교육	39	3.4	1.417	94.87
기타	86	3.59	1.498	91.86
무응답	328	3.41	1.421	75.3
총계	2,192	3.45	1.438	78.65

IV. D대학의 중도탈락 개선 방안

1. 입학전형 방법의 개선안

표 8. D대학의 중도탈락 개선방안

개선방안	세부추진방법	기대효과 및 특징
입학전형 방법 개선	면접전형 비율 확대와 면접방식을 개선	면접참여 경험은 소속감으로 이어져 탈락 가능성도 줄어 들
	수시1차 모집정원 확대	자발적 의지에 의한 부적응 감소로 탈락률을 개선하는 효과
입학전형 과정 개선	엄정한 입학전형 절차 적용	대학 진입난이도가 높을수록 중도탈락률이 낮아지는 효과
	입학 전 대학방문 지도	사전에 교육내용을 제시하고 진로방향을 확인하도록 지도
재학생 중도탈락 개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개선	선후배간 자발적 신고식이 아닌 친밀도를 높이는 행사로 전환
	학적관리체계 기능 강화	휴복학 상담 강화를 위한 전문가 확보 및 체제 정비운영
	대학생활 및 진로지도 교육과정 운영	신입생 대학생활 및 진로지도교과 운영의 내실화
	학습동아리 활동과 튜터링	학습공동체 및 튜터링을 활용한 대학생활 만족도 제고
	학생 취업을 우선하는 대학	취업과 진로를 책임지는 대학의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을 추진
	대학생활 만족도 개선	수요자 요구를 먼저 생각하는 대학의 교육 목표와 방향 설정

[표 8]은 본 연구를 통해 D대학의 중도탈락률을 개선하는 방안을 세부추진방법으로 구분하여 요약한 것이다.

첫째, 학과별 모집정원에서 면접전형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다. 교수들은 교육경험에 의해 면접전형 학생들은 다른 전형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인 입학전형별 만족도조사에서 면접전형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학년일수록 학업성취도나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8]. 이들은 대학이나 지원학과에 대한 소속감이 높고 전공 선택 시 적성이나 관심분야를 우선하였기 때문에 확고한 진로 결정 양상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입시에 발휘한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와 대인관계의 확장은 대학생활을 지속하는데 기여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면접전형에 대한 모집정원을 증대하는 것이 중도탈락을 줄이는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면접전형 학생의 중도탈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성적보다는 성적 이외로 비교하는 영역 즉,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포트폴리오 등을 활용하여 전공적합성, 전공영역의 미래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을 구체화하여 평가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예컨대, 면접전형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진로탐색, 지원학과 정보 수집, 전형 자료 준비 등을 자기 주도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자료 공개와 경력 쌓기를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둘째, 수시1차 모집정원을 최대한 늘리는 방안이다. 수시전형 학생은 자발적 선택에 의해 대학생활 부적응에 의한 중도탈락률이 낮기 때문에 탈락률을 개선시킬 수 있다. 학과별 반영방법으로는 실기를 적용학과의 경우는 일반전형의 비율을 높이고 비 실기 학과는 면접전형과 연계전형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2. 입학전형 과정의 개선안

첫째, 엄격하고 까다로운 입학전형과정을 적용한다. 합격생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과 개별 상담 절차를 의무적으로 밟도록 입학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이다. 대학에 대한 소속감과 학과 전공에 대한 개인의 학습 욕구가 강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신입생 선발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교육기관의 구조가 중도탈락에 미치는 영향에서, 입학난이도가 높을수록 중도탈락도 적게 나타난다고 밝혀졌다[9]. D대학의 경우도 실기시험이나 면접전형을 치른 학과의 탈락률이 낮은 것도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

특히, 자퇴는 주로 입학과 동시에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류에 의한 합격생을 선발하고 통지하는 행정절차만으로는 안 된다.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인문계, 연계교육 전형과정에서 진로와 학습계획에 관한 내면상담 절차를 의무적으로 밟도록 하여, 대학생활에서 겪게 될 어려움과 고민을 미리 일깨워줄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방안이다.

둘째, 입학 전 대학생활 및 전공을 체험할 수 있는 예비 대학생활 프로그램 참여를 제공한다. 대학 입학 전에 대학 및 학과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사전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신의 진로 선택과 전공적성에 적합한 학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진학과 진로 상담을 단체와 개별지도도 실시한다. 대개의 학생들이 점수에 맞춰 학과를 지원하거나 주위사람의 권유나 소문을 듣고 전공이나 학과를 선택한다. 설령 자신이 직접 소신을 갖고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피상적 판단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 입학 전에 대학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개선이 필요하다. 오리엔테이션이나 신입생 환영회를 마친 학기 초가 되면 힘찬 소리로 신입생들이 인사하는 모습을 본다.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선배들 때문이다. 선후배 서열이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학과의 전통을 강제적으로 유지하려는 신고식은 대학생활 적응에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학과단체 모임과 신고식에서 신입생에게 강제로 무대에 서게 하거나 활동을 강요하는 문화는 지양해야 마땅하다.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찾는 신입생이라 하더라도 강요에 의한 행사활동은 결코 좋은 전통으로 이해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강압에 의해 합류해야만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경계심과 고민은 대학생활을 마음에서 떠나게 만든다. 선배와의 관계가 입학 초기부터 부정적인 양상을 보이는 경우, 대학생활에 대한 흥미를 잃고 강의마저 빠지는 경우가 있다. 선후배의 서열 강조는 부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여 신입생에게 부정적인 대학생활 이미지를 형성하기 십상이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나 환영 행사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하고,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기회이다. 선배의 권위를 세우는 신고식이 아니라 친밀도를 높이는 행사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 자치 행사로 맡길 것이 아니라 신입생 입장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폐습은 탈피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3. 재학생 중도탈락 개선안

첫째, 제적생 방지를 위한 학적관리체계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제적생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다. 군휴학 이후 미등록으로 제적되는 사례도 늘고,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대학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학생 수가 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등록 복학에 대한 학적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미등록자 휴학상담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D대학의 경우 연예 특기 전형 학생들의 제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과별 학생보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유지 체제를 확립한다. 즉, 소극적인 등록관리 차원에서 벗어나야 한다. 예컨대, 입학 학기 초부터 결석하는 학생은 관심대상이어야 한다. 교수와 학생 간 상호작용은 피상적인 관계가 되기 쉽지만, 교수관계는 대학생활에 적응하는데 주요변수이어서 중도탈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학생이 대학에 입학한 후 학문적 경험과 대학구성원과의 긍정적 관계는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대학생활 부적응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능력, 관심사, 기능 등과 대학이 제공하는 기회제공의 불일치에 의해 발생한다. 이럴 경우 대학에서 학과 상호작용하여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학생은 고립된다. 대학과 학과의 일원이 되어 소속감을 편안하게 느끼고, 자신의 역할을 인지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자신의 역할을 인식했을 때 학생은 비로소 대학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셋째, 학습공동체 및 튜터링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학생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학생들의 미래가 불투명한 대학은 중도탈락이 많을 수밖에 없다. 대학생활에의 경험 인식과 참여도는 중도탈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학습동아리 및 튜터링 참여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대학생활에 대한 헌신을 증가시킬 수 있다.

넷째, 진로고민과 갈등, 불투명한 장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경제적인 문제나 취업 등 현실에 대한 불안 심리가 대학을 떠나는 요인인 세상이다. 대학생 스스로가 미래 실업자라 말하고 있다. 때문에 대학생활에서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것도 졸업 후의 진로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진로가 보장되지 않은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진로와 취업 문제를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도탈락에서도 취업문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섯째, 교수는 대학생활의 지휘자이고 선행하는 대학생활의 안내자 역할을 강조한다. 교수와 학생의 긍정적인 관계는 공동체적 유대감을 높이고 학생이 대학생활을 지속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한다. 세심한 가르침과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학과에 대한

애착을 갖게 할 수 있다. 또한 청년기에는 사회불안이 형성되기 쉽고 사회불안은 자신의 정체감, 학업, 진로, 대인관계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대인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배와의 커뮤니티를 권장해줄 필요가 있다.

V. 결론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입학전형별 중도탈락 원인을 분석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대학생의 중도탈락은 개인, 대학, 사회 및 국가교육정책 등 다양한 변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이다. 그 중에서 전문대학생들은 대학 간 서열에 의한 선입견이 있는 상태에서, 뚜렷한 진로목표나 학습계획에 의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순에 따라 무작정 전공을 선택하여 입학하는데 있다. 요컨대, 이미 중도탈락 가능성을 지닌 많은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중도탈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더라도 개선의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생 보유율 지표가 중요한 대학 입장에서는 입학 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적용하는 것이 최선책이라 할 수 있다. 사전 대비책은 비용대비 효과 면에서도 유리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개인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법이기에 때문이다.

둘째, 신입생 자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다. 신입생 자퇴는 중도탈락률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입학과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도탈락률을 줄이려면 신입생 자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신입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학습목표에 대한 확신이 없이 대학을 선택한다. 다수의 학생들이 고교내신 또는 수학능력 성적에 맞춰 학과를 지원하는 경향이 많고, 주위의 권유나 소문 때문에 학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설령 자신이 직접 판단하여 학과를 선택했다 해도 충분한 탐색을 하지 않고 피상적인 판단에 의해 입학하기 때문에 갈등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유형의 입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학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뚜렷한 목표의식이 부족할 수밖

에 없다. 때문에 대학생활에 대한 흥미나 기대 등의 관심 정도가 낮다. 결국, 학과의 정체성이나 비전에 동의하지 않거나 만족하지 않음으로 인해 중도탈락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입학자원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과 교육의 정체성과 학생의 진로목표가 부합한지를 명확히 제시하는 단계를 입학전형과정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입학 예정 신입생을 대상으로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자신이 대학에서 학습할 목표와 진로방향이 선택 학과의 비전과 교육 정체성에 부합한지를 탐색하는 과정을 부여해줄 필요가 있다. 또한, 중도탈락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선별하여 교육지원활동을 강조함으로써 잠재적 중도탈락을 줄일 수 있다.

셋째, D대학의 사례를 들어 전문대학의 중도탈락현황을 면밀히 진단하였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우리대학을 포함한 대학들은 그동안 교육부의 입학수급정책을 타하며 학생모집에 치중하여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스스로 위기를 자처한 것이나 다름없다. 때문에 그동안 학생들의 중도탈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 제시는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제안한 방안을 입시와 학사운영에 반영한다면 전문대학생 중도탈락 문제를 현저히 개선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1] 김재현, “전문대학생의 개인, 교육기관, 사회적 변인과 중도탈락의도의 위계적 관계”, 직업교육연구, 제30권, 제2호, pp.249-266, 2011.
 [2] <http://www.academyinfo.go.kr/>
 [3] 최길성, 이승희, “전문대학 기초학습능력 향상 방안: D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4호, pp.468-476, 2011.
 [4] 최길순, “전문대학생의 중도탈락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G광역시 D대학을 중심으로”, 한국비즈니스리뷰, 제3권, 제1호, pp.95-118, 2010.
 [5] 박미정, 함영림, 오두남, “전문대학 신입생의 의가 결정역량,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만족도 정도 및

상관성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4호, pp.327-337, 2012.

[6] 노혜란, 최미나, “대학생의 중도탈락 영향 요인 분석을 통한 고등교육 인적자원개발 정책 방안 :D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인적자원개발연구, 제11권, 제1호, pp.89-107, 2008.
 [7] 임연옥, 이광희, “사이버대학 재학생의 중도이탈 문제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교육, 제30권, 제3호, pp.321-347, 2003.
 [8] 박금주, *입학사정관제 대학생의 중도탈락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3.
 [9] 이병식, “대학생의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기관 특성의 탐색적 연구”, 교육학 연구, 제41권, 제2호, pp.231-254, 2003.

저 자 소 개

최 길 성(Kil-Sung Choi)

중신회원



- 1988년 2월 : 한밭대학교 전자계산학과(공학사)
- 1992년 2월 : 수원대학교 전자계산학과(이학석사)
- 1992년 2월 : 충북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공학석사)

▪ 1999년 3월 ~ 현재 :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미디어기술학부 교수

<관심분야> : 교수학습기법, 멀티미디어 콘텐츠

이 용 창(Yong Chang Lee)

정회원



- 1991년 2월 : 한남대학교 이과대학(이학사)
- 1996년 2월 : 한남대학교 대학원(이학석사)
- 2001년 2월 :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전기전자공학과(공학석사)

▪ 2001년 3월 ~ 현재 :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미디어기술학부 교수

<관심분야> : 컴퓨터그래픽, 3DTV, 학생심리상담